

## 나의 사랑하는 그 나라 프랑스

전 세계 많은 나라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프랑스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명한 에펠탑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그림의 장소인 목마르뜨 언덕이 있어서도 아니다. 음식이 좋아서도 아니고 유명한 루블 박물관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를 좋아한다. 프랑스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나라였기 때문이다. 22살 선교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에 그저 전도한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서 나선 것이 유럽이었고 나에게 허락된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 나라의 잘살고 못사는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라로 보였다. 몇 달 동안 거의 1,000여 군데에 달하는 동네들을 자동차와 함께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한 전도지를 전달하며 사람이 없으면 전도지를 문에 꽂아서 놓고 그 집을 위하여 기도했었다. 잘 먹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다른 나라 형제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그 일을 했다. 그 해 여름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반팔과 얇은 긴팔 걸칠 것 하나만 가지고 갔던 나에게 혹독한 어려움이였다. 그런데 그 때에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나라의 영적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왜 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시 여행으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돌아 볼 때에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신 그 나라의 복음 사명의 뜨거움이 전혀 꺼지지 않았음을 느껴 깨달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말씀인가?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그 나라에 대한 부담을 평생토록 가지고 가든지 도와주든지 복음사역을 하라는 말씀이다. 나는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이 평생을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갔을 다윗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가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보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고 생각하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난다. 그 세대가 선교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다 하여도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더욱 힘을 합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뜨거움이 우리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8절) 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비전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